

감염병전담병원 간호사의 윤리이슈

충주의료원 간호부장 최영란

I 서론

2020년은 불청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신종감염병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개발 및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 중이고 의료진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철주야 환자를 돌보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신종감염병 메르스라는 감염재난을 잘 대응하였고 지금의 코로나19 상황도 대처를 잘하고 있지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19는 신종 감염재난 중 가장 지난한 여정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월과 3월 환자 수가 최고조에 달해 의료장비와 병상, 인력이 많이 부족해 병원과 의료시스템이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넘쳐나는 환자들로 인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대안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그 대안으로 떠오른 음압격리치료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입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월21일 지역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함께 공공·민간병원 음압병실 등 지역 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정하였으며 충주의료원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충주의료원은 2월28일까지 일반환자가 입원하고 있던 모든 병상을 소개하고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위한 기존의 음압격리병실 정비와 부족한 이동형음압기를 새로 설치하고 감염격리환자를 위한 입원병상을 준비가 끝남과 동시에 3월2일 대구 확진환자 29 입원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음압격리병동 가동을 하였으며 5월3일까지 120명의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현재는 감염전담병원에서 해제되었지만 언제든지 음압격리병동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일반 환자 간호를 수행했었는데 갑자기 감염병 환자 간호를 하게 되면서 겪는 간호사의 직업윤리 사명감과 내적 딜레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II 본 론

1. 간호사의 직업사명과 개인의 욕구

숨가쁘게 준비 완료된 병상 운영은 처음에는 순조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임상현장 어수선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사회환경은 간호사는 “백의천사”라는 칭송과 함께 당연한 직업사명감으로 감염병도 잘 이겨낼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지만 실제로 격리병동 간호사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도 있지만 간호사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이라 내적으로 불안과 초조함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급박했던 2월말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간호사들의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환자를 간호하게 된 상황으로 다수가 당황하였고 이때 많은 논란과 근무를 거부하는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처음 겪는 신종감염병이라 특별한 치료법이나 예방법이 없고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의 불안감과 격리환자 간호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라 선뜻 지원 근무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간호사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누구나 꺼려하는 감염환자를 간호하면서 우리 간호사의 인권을 고려해 줄까? 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까? 라는 의문이 있었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격리병동 간호사 배치 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사항으로 감염 취약 순으로 정하게 되는데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때, 어린 자녀가 있고 육아의 문제가 있는 경우, 부서배치에서 배제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근무하는 선후배 간호사들간의 윤리적 갈등과 본인이 간호사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게 아닌가? 설령 근무하는 상황에서도 가족에게 감염전파 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귀가를 못하고 원내 기숙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 직장에 계속 근무를 해야 하나? 하는 갈등이 나타나 직업사명감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모의료원 간호사들이 코로나19 병동에는 가지 않겠다고 16명이 사직서를 제출 후 출근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되어 병동운영 어려움이 있었는데 병원 측은 간호사로서의 소명을 전제로 설득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런 간호사의 집단사직을 두고 어떤 사람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 백의천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환자들을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환자를 헌신짝 버리듯 하는 처사를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시민과 “모두가

힘든 시기라 간호사들도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격리된 채 생활하느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직업윤리를 버리면 안된다”는 이중적 잣대로 인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고 이것은 격리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개인의 욕구와 직업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간호 이외의 업무로 인한 딜레마

격리병동 간호사는 보호복과 보호장비를 갖추고 근무함으로 인해 체력적 소모가 커서 2~3시간 간격으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작탈의하는 것에 부담감과 정신적, 체력소모도 큰데 글러브를 착용하고 정맥주사의 어려움, 흡인처치 등 어렵고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격리병동에는 감염예방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출입이 가능해 장비세척, 분류, 각종 청소(병실, 복도, 화장실도 포함)와 식사 배식과 정리도 하는데 환자의 말도 안되는 요구(가령 세면기를 하루에 두 번 이상 청소, 병실바닥 청소를 1 일 2회이상 요구) 등 감염격리병동 근무하면서 전문직 간호사가 간호본연의 업무도 아닌 일을 할 때 직업에 대한 회의와 불만으로 직업윤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1) 면회금지 상황

직접 얼굴을 보고 의료진과 소통하고 환자에게도 가족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감염병 특성상 격리병동은 면회가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멀리 타지역에서 면회를 왔을 때 금지되었다고 하는데 계속 요구할 때와 환자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면회를 간절히 원할 때 면회를 시켜 주지 못한 안타까움과 환자를 위해 맛난 음식을 택배로 보내왔을 전달해 줄 수 없는 미안한 마음 "상황에 맞추어 면회를 제한하는 것이 간호사에게 내재된 딜레마입니다.

2) 치매환자 간호와 의무상충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제일 힘든 환자는 대다수의 간호사들은 치매환자라고 하였습니다.

치매할머니가 다른 환자와 코호트 격리된 상황에서 인지장애로 인해 아무데나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며 침대에서 내려오고 때론 병실 문을 열고 나오는 상황이 수시로 반복되었습니다. 이때 마음은 어떨까요?

치매환자를 간호하는 업무는 일반 간호 상황에서도 어렵지만 격리병동의 치매환자는 몇배 힘들게 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백의천사라는 명분만으로 간호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치매환자 간호이외도 간호를 하면서 겪게 되는 상황은 다수가 있습니다.

3) 격리환자의 인권

음압격리환자 병실은 감염병이라는 특수상황이라 CCTV로 간호사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때 동의서는 받고 있지만 간혹 환자의 인권을 어떤 방법으로 보장을 해주어야 되는지? 아님 감염병환자니까 괜찮아 업무를 수행이니까 배려할 필요가 없나? 라는 윤리적인 의문이 생겼습니다.

4) 이상한 행동과 언행으로 인한 갈등조장

가끔은 감염병동에 입원했음을 잊고 반찬투정, 격리에 대한 분노, 배달음식 요구, 기호식품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요구할 때 전문직업인으로서 상실감이 커다랗게 다가오곤 했습니다.

III 결 론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충격, 고통 등이 전이되어 환자와 같은 정서적인 디스테레스와 소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감피로로 인해 간호사들은 신체화 증상, 우울,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고 이는 환자안전과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간호사 역시 자신의 건강을 돌보야 할 권리이자 의무가 있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사태의 특성으로 간호사에게 사명감만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의무만 요구하지 말고 격리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환경과 노고에 대한 보상 및 처우개선이 사회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